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중년기 여성의 생활스트레스

-한일비교-

강 란 혜* (충신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따라 중년여성이 겪는 스트레스는 다를 것이다. 생태학적 관점에 따르면, 해로운 환경 상황에 직면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면 장애의 위험이 증가하는데, 이는 가중된 환경적 요구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것이다(DuBois et al, 1992).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중년여성이 지각하는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를 비교 연구하는 것은 중년여성을 이해하는데 유의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연구에서 비교문화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비교문화적 접근을 통해 두 문화에 있어서 중년기 여성이 겪고 있는 연령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일상적 생활스트레스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중년기 여성의 스트레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에 대해 한국과 일본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년기스트레스에 연령적 변화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셋째,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이 있는가, 그것은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있는가.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은 서울시에, 일본은 동경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자녀를 둔 40세에서 59세까지의 중년기 여성 총 61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활 스트레스를 살펴보았다. 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田中(1996)가 사회적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가능성이 높은 스트레스원 6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데이터를 합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제1요인은 '자녀의 교육문제', 제 2요인은 '부부의 문제', 제 3요인은 '친척의 문제', 제 4요인은 '경제적 문제', 제5요인은 '노인부양의 문제', 제 6요인은 '직장,일의 문제', 제 7요인은 '노동과중문제', 제 8요인은 '물리적 환경의 문제', 제 9요인은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의 9요인이 추출되었다. 9요인 중 5개의 요인에 한일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의 문제', '자녀와 커뮤니케이션', '경제적 문제'는 한국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 일의 문제', '노동과중문제'는 일본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게다가 '자녀의 문제'는 40대 후반에서 50대의 한국여성이 더 강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반면, '노인부양의 문제'는 40대 후반에서의 일본여성에게만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년여성의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는 한국과 일본 모두 50대 후반에 비해 40대에서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사회적 요인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자녀의 요인, 취업유무, 노인동거유무, 수입이 한국과 일본 공통으로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이 더 강하게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의 연령단계는 한국여성의 스트레스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육지의 요인은 일본여성의 스트레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한국여성의 스트레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